

도서관학의 문제점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



이 홍 구

(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장)

1. 서 언

도서관학이 학문이나? 기술이나? 하는 문제는 그 발생지인 구미 또는 기타 국가에서 이미 논쟁을 거듭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선명(鮮明)하게 결론지어 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무릇 어떠한 학문이던지 그 발달 과정에서는 많은 논쟁을 벌려 오는 것이 상례(常例)이며, 그렇게 하므로서 보다 낮고 보다 새로운 단계로 올라 서게 되는 것이니, 우리 나라에서도 도서관학에 관한 문제가 진지하게 논구(論究)되는 학풍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 학문 명칭으로서의 도서관학

어떤 직원이 말하기를 도서관학이라는 학문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면 미술관학, 박물관학도 성립될 수 있고 구청학(區廳學) 시청학(市廳學)도 성립될 수 있지 않느냐고 비꼬듯이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학문에 대한 정의, 즉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미술관학, 박물관학이 성립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오늘 날까지 그것에 관한 지식이 다면화(多面化)하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조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 그 필요성이 요청되었다고 하면 성립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구청학, 시청학은 행정학이라고 불리우는 학문의 테두리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대개 학문의 성립과정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상식으로서 대처(對處)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의 지식은 그 정도에서 머무르게 되지만 이것과는 달리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상승(上昇)하여 이제까지의 상식으로서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는 그 대상이 복잡화되고 다양화되어 상식적인 처리로서는 대처할 수 없을 만큼 그 이상의 지식이 요

청되었을 때에 이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시도되고 연구되는 동안에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학도 이와 같은 요청에 의하여 성립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 용어(用語)가 아직도 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의 대답도 그 용어 자체를 아무 거리낌없이 받아 드리는 결과가 되었으니 질의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혹은 등문서답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그 지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학이라는 학문도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도서관학이라는 학문을 처음부터 부정해 버리려는 태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날 이 학문 분야가 엄연히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까 타당한 태도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된 중요한 원인은 도서관학이라는 용어의 어의(語意)에서 느끼는 이유라고 보아집니다.

도서관학이니까 도서관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까만 도서관이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하나의 시설물(건물)로 보게 되고 다음으로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이와 같은 시설과 기관이 많습디만 그 명칭의 뒤에다 “학(學)”자를 붙이는 학문은 거의 없습니다.

행정관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행정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학은 연구대상을 관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관청과 유사한 조직을 가진 타기관이나 기업체에 까지 확대시켜 행정학이 적용되는 범위는 대단히 넓어져 있습니다. 또 관청에서는 금전을 수입하고 지출하는 사무를 봅니다. 이것을 취급한 학문을 회계학이라고 합니다. 이 회계학이 관청이외의 기관에서도 쓰여지는 것은 행정학의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에서 연구되는 조직관리론은 행정학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류나 목록법은 도서관 이외에서도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식이란 본래 보편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며 또 그 보편성에 따라 그만큼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명칭을 부칠 때에는 그 공통성에 따라 행정학, 회계학 이렇게 부르지 시정학, 회사학 등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대상이 행정, 회계 등 추상적 공통사항이며 시정, 회사 등 구체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관청에서 행사하는 행정이나 회사에서 행사하는 행정이 세부적으로는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원리 원칙은 동일한 것이며, 회계라는 사무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원리 원칙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행정학 회계학 등을 한데 묶어서 관청학 회사학이라고 부른다면 수긍할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 조직관리, 분류, 편목, 기타 등등을 한데 묶어서 도서관학이라는 개념속에다 집어 넣으려고 한 것이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학이란 용어도 관청학이란 용어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문의 명칭을 다같이 추상적 공통사항만을 쫓아서 표시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학, 식물학, 생물학, 지질학, 광물학, 토양학 등 그것에만 국한된 구체적 사항을 쫓아서 부르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날 “학”자를 붙이는 학문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학문을 일일이 다 알아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보통명사 뒤에 “학”자를 붙이는 학문은 자연과학에 많고 추상명사 뒤에 “학”자를 붙이는 학문은 인문과학에 많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만 인문과학이라고 호칭되는 경제학, 법학, 교육학, 역사학, 종교학, 윤리학, 사회학 등등은 모두 추상명사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연현상은 물질적 공간적인 존재이므로 보통명사가 많이 붙게 되고 인문 과학은 인간사(人間事)를 대상으로 하는데 인간 관계를 주로 추상명사로 표시되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도서관학은 분명히 자연과학이 아니고 인문과학에 속할 것인데도 보통명사 뒤에다 “학”자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못한가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달리 적절한 용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 부득이한 사정이었습니지만 바로 말해 적절한 용어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 도서관학의 대상

(1) 대상 범위

자주 인용되는 것이지만 도서관학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라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 ALA

도서관학이란 인쇄 또는 서사된 기록류의 식별, 수집, 조직, 이용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다.

(ㄴ) 독일

광의로 말하면 도서관에 관한 이론과 아울러 기술의 총화를 계통적으로 질서를 세운 것을 의미한다.

(ㄷ) 일본

도서관학이란 도서관에 관한 모든 지식 및 기술을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ㄹ) 우리나라

도서관학은 인쇄 또는 수서된 문헌을 인식하고 수집 정리, 조직, 운영하는 지식과 기술이다.

이상의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학의 대상은 지식과 기술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과 기술이라고 할 때에 그 지식과 기술은 무슨 지식과 기술이냐 하면 (ㄴ)과 (ㄷ)에서는 도서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여 좀 모호한 표현을 하였고 (ㄱ)과 (ㄹ)에서는 구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니다. 즉 후자대로 해석하면 도서관학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이 될 것이요. 전자대로 해석하면 도서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전자)에는 도서관 운영 이외의 다른 요소도 포함된다는 뜻을 전제할 수 있으니 대단히 편리한 정의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본질론이라든가 하는 원리에 관한 지식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상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보통 도서관에 관한 지식, 도서관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상에 필요한 지식 즉 도서관 조직, 관리, 수서, 정리, 운영 등에 관한 지식과 이론을 지칭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것은 또 각 대학에서 가르키는 교과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드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날 도서관학이란 용어 속에 포함되는 각종 지식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을 말하는데 불과하며, 이것이 곧 도서관학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서관학은 도서관운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도서관학이 도서관이 존립하는데 있어 모든 기본적인 업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서관 운영에 관한 학이었다는 것은 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운영이라고 하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 문제가 먼저 제기될 것입니다. 이 도서관 운영의 방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운영 기술이 착안되었으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분류, 편목 등 정리 기술이 고안(考案)되었던 것입니다.

위에서의 정의가 모두 기술이라는 말을 삽입한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ㄱ)(ㄴ)(ㄷ)에서는 도서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모두 도서관학이라 하였고 (ㄷ)에서는 도서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도서관학이라고 하였으니 이를 다시 풀이해 말하면 전자에서는 도서관학이 지식도 되고 기술도 된다는 뜻이 되어 학문과 그 대상을 혼동한 표현이 되었으며 후자에서는 지식과 기술이 모두 도서관학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학과 대상의 혼동을 변한 듯 하지만 지식과 기술 두가지가 각각 있다고 보는 점은 전자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서관학에는 도서관에 관한 지식과 도서관에 관한 기술의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서관에 관한 지식이고 어떠한 것이 도서관에 관한 기술이나 하는 점을 규정하여야 하겠습니까만 이것을 잘라 놓기 전에 지식은 무엇이고 기술은 무엇이나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먼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학문과 기술

위에서 자주 지식이니 학문이니 또는 기술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지만 먼저 지식과 학문과의 관계를 말하겠습니다. 지식이라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명료한 인식, 평범하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 학문도 지식속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문은 체계적으로 조직된 지식을 지칭하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식속에는 체계없는 단편적인 지식도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저 지식이라고 할 때에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기 이전의 지식을 가르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전제하여 둡니다.

다음 기술에 대하여 말하면 광의와 협의 두가지로 해석되는데 광의의 정의는 일정한 목적달성에 도움이 되는 물질적 정신적 모든 수단 수속, 또는 이것들의 조직체계를 말하며 협의로는 도구적(道具的) 기술을 뜻하니 인간이 자연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연을 지배하려는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도구라는 물질(物的) 보조수단을 써서 행하는 수속 즉 물질 생산을 위한 수단을 말합니다. 이 협의의 정의는 주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개념으로서 자연과학과 관련되는 일반적 통념입니다.

기술의 특징은 첫째로 발명에 있다고 하며 발명이란 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찾아내는 발견과는 다르다고 풀이됩니다. 그 둘째는 모방을 말하니 모방이란 것은 자기모방 즉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것이며, 반복을 계속하는 동안에 습관화 됨으로써 그 사회에 제도화(制度化)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사회에서 제도화 된다는 것은 사

회제도의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이며, 인간관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술과 과학과의 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지으며 그 진전(進展)에 상호 자극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과학의 발달을 자극하고 과학의 발달은 기술의 발전을 가져 왔던 것입니다. 그 예로 뉴턴의 이론역학 확립은 그의 천재적 노력의 결과이겠습니지만 그 당시 사회의 기술상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 당시 사회에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산업발달, 전쟁기술발달 등이 해결을 요구하는 과학상의 문제는 역학적 문제였다고 합니다. 즉 뉴턴의 이론역학도 이 기술상의 요망에 자극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술은 또 도구 기계 장치 등 생산기술체계를 인간에서 독립된 객관물로서 보고 연구하는 과학을 낳게 하였으니 응용 자연과학이라고 불리우는 공학, 농학의 제부문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그 현상이나 법칙을 발견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목적달성을 위해 응용하자는 것이니 그 응용인 기술 과학부문에는 인간의 의도가 상당히 개입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자연법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과 과학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것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평행선(平行線)을 긋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호(交互)작용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과학의 대상이며 과학 자체는 아닙니다.

위에서 기술은 수단·수속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 도구와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구는 연장을 의미하고 수단·수속은 인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협의의 정의에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것이며, 도구를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자연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자연과학과 기술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기술의 개념을 가지고 도서관학을 들여다 보면 자연법칙이 이용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술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고 하면 그 기술은 어떠한 것을 뜻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3) 기술과 기술학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학문의 구조에 좀더 언급할 필요를 느낍니다. 학문의 분류는 고대로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각기 입장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이 안출(案出)되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사회과학이라고도 함)으로 나누는 것은 통례입니다.

자연과학은 자연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인문과학은 인간의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연의 세계는 자연의 법칙 즉 필연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이며, 인간의 세계는 인위성(人爲性)이 개재되는 세계입니다. 필연의 법칙은 인간의 의사로서 좌우될 수 없으며 인위성은 인간의 의사로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사로서 좌우된다는 것은 임의(任意)로 된다는 것이니 인간의 세계에는 필연의 법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위성이 개재된다는 것은 인위성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니 학문의 성질에 따라 개재되는 농도(濃度)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중에서 사회라든가 역사라든가 경제라든가 하는 부문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 이른바 협의의 사회과학에서 필연의 법칙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야는 인간의 의사(意思) 행동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곳인데 집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의 의사대로 좌우되지 않고 집단의 추세에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며, 인간을 자연산물로 본다면 그 집단의 행동은 자연적 물질운동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사회현상은 물(物)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개인에게서 독립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세계에는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인위성이 개재되는 것이니 다만 짙(濃)고 얇(薄)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와 같은 사회현상을 현상 그대로 인식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나은 사회로 변경하려는 노력 즉 이상화(理想化)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상화의 노력은 사회현실을 나타내는 그대로 받아만 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간의 이상에 맞추도록 가공을 하는 것입니다. 가공을 한다는 것은 기술을 부린다는 뜻과 같은 것이며, 이리하여 인문과학분야에도 기술이 들어 설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자연과학분야에서 말하는 기술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공간적인 형태를 갖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머리로서 고안해 낸 비공간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자연과학분야에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기 위하여 기술이 생기고 기술학이 발생하였듯이 인문과학분야에서는 인간이 사회현실을 이상화하려는 노력에서 역시 이에 상응(相應)한 기술이 생기게 되니 그에 따른 기술학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문중에 기술학 부문이 생기는 것은 자연과학뿐 만 아니라 인문과학분야에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창안해 냈습니다. 자손들을 키우기 위하여 교육을 합니다. 법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교재(教材)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겠습니다. 이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이나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학 등은 기술학입니다. 재정학 회계학 등도 기술학입니다. 도서관학은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학이니 예를 들면 분류표는 분류작업(기술)을 하기 위한 도구이고 목록규칙은 목록작성(기술)을 위한 도구이며, 그 목록은 또 도서관을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나 도구를 사용하는 수단 즉 기술은 도서관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학문과 대상은 구별하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도서관학이 학문이나 기술이나 하는 것은 문제 제기의 관점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문이 아니고 기술에 불과하다고 하면 그 기술을 뒷받침 할 만한 학문적 이론이 빈곤하다는 뜻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도서관학을 성립시킬 원리의 결핍을 타하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분류면 분류 목록이면 목록 각기 분야 나름대로 이론체계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분야대로 이론체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도서관학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인문과학분야에는 인위성이 개재된다고 하였고 학문의 성질에 따라 그 농도가 짙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부문의 여러 학문은 그 농도가 얇고 응용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분야에는 짙어집니다. 그것은 응용에는 인간의 임의성(任意性)이 다분히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임의성이 다분히 작용된다는 것은 유동적이란 말도 되고 일면 그만큼 진리성이 희박하다는 뜻도 되니 따라서 이론체계확립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학문은 때와 장소에 알맞은 가치표준을 구하기 위하여 항상 같고 다름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학이나 교육학이 오랜 시일을 두고 연마되는 것을 보아도 짐작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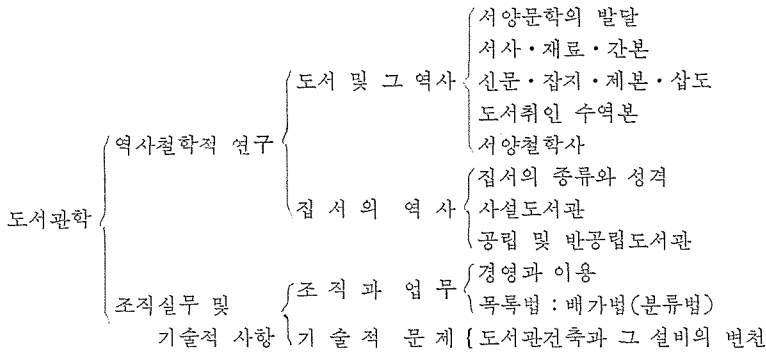
4. 도서관학의 체계

(1) 예시

도서관학의 체계에 관하여는 여러 학자들이 시도한 바 있으며 그것이 학문의 체계로서 인정받을 만큼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그 전부를 입수할 수 없어서 경솔히 말할 수는 없으나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점을 들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잘 인용되는 “기르히나”가 작성한 체계입니다. 이 체계가 학문의 체계로서 인정 받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분들에 의하여 지적된

(예시)



바입니다. 즉 필연적인 원리가 일관되어 있지 않고 내면적인 연관을 가지는 유대가 통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는 부분도 있고 주변학(周邊學)으로 머물러 있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2) 학문의 체계

원리가 일관되면 내면적인 연관도 있게 마련이지만 학문에 있어서의 체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검토하고 도서관학의 체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5. 도서관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1) 시야전환(視野轉換)

학자들에 의하면 체계라 하는 것은 어떠한 원리에 입각(立脚)하여 조직된 지식의 통일적 전체라 하고 다음과 같이 성립조건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도서관학에서는 주로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을 보려는 눈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도서관을 도서관 밖에서 보려는 눈을 갖출 때 즉 일단 고차적인 입장에서 바라 볼 때, 다시 말하면 거리를 놓고 바라 볼 때에 그 대상은 더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다른 분야에서 찾아 본다면 오늘 날 학교라는 교육제도가 있기 이전에도 교육이라는 인간의 행위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일을 두고 그 행위를 거듭하는 역사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학교제도가 현재 사회에서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으므로 채택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을 학교제도 안에서만 본다면 큰 과오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1) 통일적 전체라 하는 것은 이것 저것 모아놓은 지식의 집합(集合)이나 목록(目錄)과는 달라 합리적 이해와 설명으로 부분을 전체에다 질서있게 안으로 결부시키는 조직적 구성(組織的構成)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서관도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그것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살핀다면 그 본질이 더욱 명료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2) 조직적 구성을 가진 통일적 전체라 하더라도 유기체(有機體)와는 다르니 그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적 관계이며 방법론적 통일(方法論的統一)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도서관은 변모하여 간다

(3) 그러나 체계는 단순한 방법적 형식이어서는 안 되니 단순히 지식의 분류(分類)나 지적도식(知的圖式)과는 다르며 스스로 사실과 부합되고 전체를 관철하는 통일적원리(統一的原理)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서관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시대와 함께 변모하여 갑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자료의 축적에서 출현하였고 오늘 날에는 널리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모습으로 변하여 왔습니다. 일부의 특권층에게만 독점되어 재보시(財寶視)된 것은 도서가 극히 귀하기 때문이며 일반에게 공개되는 오늘 날의 도서관으로 바뀌게 된 것은 도서의 양(量)적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학문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은 인쇄술의 발명에 따라 일시에 많은 양(量)을 인쇄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도서는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도서관에 새로운 변모를 가져 온 사실이 생겼습니다. 과학의 비약적 발달에 의한 지적(知的) 문헌의 범람은 종래 도서관에서 사용

위에서 예를 든 "기르히나"의 체계가 이에 비추어 볼 때 체계가 아닌 것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몇가지 체계형식이 나왔으나 단순한 도식에 불과한 것이며 방법과 원리를 통일시키는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방법과 원리의 통일을 가지지 못한 각 분과학을 도서관학이란 개념속에다 무리하게 집어 넣으려는데서 오는 실책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무리한 방법을 쓰지 말고 우선 각 분과학대로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세우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도서관에 관한 본질이 철저히 규명되었을 때 도서관의 원리가 밝혀질 것이고 이에 따라 흡수되

하던 기술적 방법만으로는 관리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도큐멘테이션이라는 새로운 관리기술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견의 도서관기술학에서 원용(援用)한 것이지만 이리하여 이것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우리 나라에서도 과학기술정보센터라는 것이 설치된 것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변모는 지적(知的) 문헌의 다량생산에 기인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타면으로 볼 때에는 지식을 담은 그릇(容器) 즉 도서의 형태 변화에도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의 것은 그 형태가 좀 두툼하고 그 생산이 시간적으로도 시일이 걸려야 되는 자료였지만 지금은 논문을 단편적으로 실리는 간행물이라는 간편하고도 신속히 생산할 수 있는 모양으로 변모하여 마구 쏟아지게 되는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의 생산양식의 변화나 형태의 변모가 생산량의 대폭 증가를 초래하였고 도서관의 운영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도서관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여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서관을 고정(固定)된 형태로서 시대적 단면(斷面)에서 관찰하는 것보다 문화의 흐름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3) 중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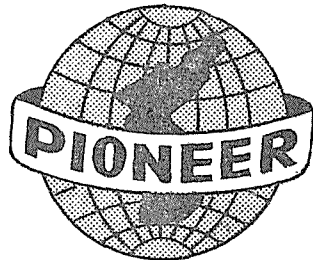
도서관의 변화에 따라 그 운영기술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러니와 달라진 기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학문적 노력이 새로워 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달라진 당면과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생한 기술학의 영역(領域)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론을 가지고 지나치게 기계적이며 비인간적이라고 평한 학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학이 기술학

의 범위에 머물러 있는데 대한 불만이라고 보겠습니다. 모든 기술학이 그 기술학을 이끌고 가는 중심분야가 있듯이 도서관학에서도 그 중심분야의 필요성이 또한 요청되는 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도서관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의 내용은 도서관내의 각 업무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법학에 있어서 각 분과학과 법이론(法理論 소위 法哲學)과의 관계, 교육학에 있어서의 교육이론과 주변학(周邊學)과의 관계를 보아도 수궁이 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술학은 원리원칙의 응용이기 때문입니다. 게오르그.레이(Georg Leyh)는 “도서관학은 본질적이 아니고 우연적, 외면적 접대기 즉 도서에 의하여 결합(結合)된 개개 독립된 교과들의 접속이다”라고 하였고 메트칼프(K.D.Metcalf)는 “도서관학교의 커리큘럼은 관리·선택·목록법·레퍼런스의 4코스인데 기술과 학생이 물리학을 배우는 것과 같은 기초 학과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도서관학에서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분야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위에서도 수차 언급한 바 있지만 도서관은 하나의 현실적 사회제도로서 그것이 담당하고 있는 위치를 정당하게 찾아야 하며 역사적 산물로서 변모하여 가는 모습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인포메이션을 커뮤니케이트한다고 할 때 그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곳은 인간이며 받아 들이는 곳도 인간이므로 이와 같이 인포메이션(광의의 지식이라고 보자)을 생산하고 섭취하는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고 그리고 그 인포메이션의 특징을 인간과의 관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70

海外學術雜誌 予約案内

- ◎ 海外 學術雜誌預約購讀에 관한 모든일은 보다 빠르고 正確하게 서비스 하고있는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 ◎ 海外學術雜誌 預約購讀에 關한限 世界の 어느 出版社의 刊行物이나 貴下가 願하는 대로 손쉽게 處理됩니다.
- ◎ 우리는 定期刊行부와 單行本부를 設置하고 有能한 職員들로 構成하여 언제나 顧客들의 注文에 對 備하고 있습니다.
- ◎ 우리는 顧客들로부터 들어오는 어떠한 問議에 對 하여서도 빠른 情報를 提供 할수 있습니다.
- ◎ 萬一 貴下께서 아직도 폐사와 關聯을 맞지 않고 계시다면 곧 書信이나 電話로 連絡하여 주십시오. 모든 條件과 情報를 提供하여 드리겠습니다.
- ◎ 위에 말씀드린 以外の 일이라도 언제나 協助하여 드릴것을 確信합니다.



파이오니아書籍
유네스코한국위원회쿠폰대행사

서울特別市鍾路区鍾路3街130番地
서울國際郵遞局私書函3553号
電話 (74) 4 8 5 5 · (75) 4 1 5 5